



'최소 공간 최대 쾌적'...세계 최초 현대식 아파트



KBS News

구독 41만

조회수 586회

+ 추가 공유 더보기

0 0

게시일: 2016. 12. 22.

앵커 멘트

1. 20세기 도시의 현실

- 세계 2차대전(1939~1945)과 함께 세계적으로 진영의 논리와 불안한 정치적 상황
- 기술의 발전, 자본주의, 세계전쟁 등으로 도시의 경제적 규모가 커짐
- 도시 인프라(도로, 상하수 등)의 노후화와 부족한 편의시설(공원, 체육시설, 복지시설 등)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
- 빠른 속도의 변화, 낯선 사람들, 그리고 범죄에 대한 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 인지



2. 20세기 도시공간계획의 또 다른 관점

① 제인제이콥스의 가로

- 공공공간과 사적공간 사이에서 모두에게 속한 공간과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자에게 제공된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
- Eyes on the street : 가로를 자연스럽게 점유하는 사람들의 눈이 항상 가로를 살피고, 지속적인 감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때, 가로는 안전함
- 가로는 실제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게 할 만큼 충분한 유인요소들이 마련되어 있어, 그것을 바라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즐거움과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함

❖ 가로 설계의 4가지의 기본원칙

- 1) 살고, 일하고, 쇼핑하고, 먹는 일차적 기능이 하나의 지구내에 모두 제공되어,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스케줄에 따라 일하면서,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
- 2) 가로변의 블록은 짧게 구성되어야 하며, 코너의 필지가 많아지도록 해야함
- 3) 건축연대가 다른 건물들이 비슷한 크기로 공존해야함
- 4) 가로에는 거기서 살고, 일하며, 주인처럼 행동하는 핵심인사들이 많아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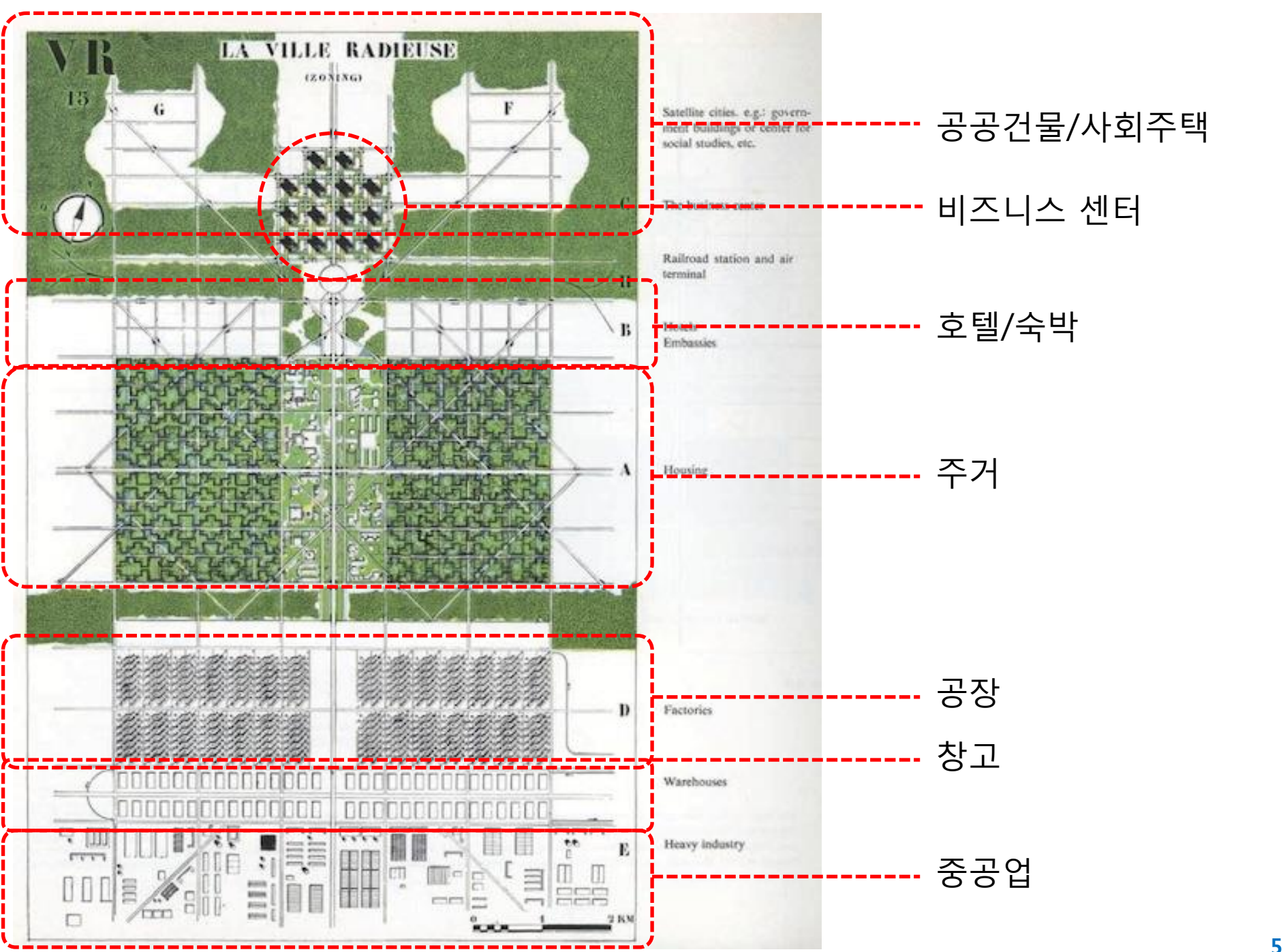
② 용도의 혼합

- 제철 등의 중공업은 교통혼잡이나 소음 등이 유발되므로, 분리시키는 것이 논리적이거나, 거주, 상점, 오피스 등의 시설은 소규모블록에서 서로 섞여 있어야 보행접근과 시설 활용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 됨
- 소규모의 건축물안에 다양한 용도가 섞여, 새로운 점포의 교체가 활발해지도록 하고, 새로 짓거나, 고쳐 사용하는 일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됨

③ 지역산업 생태계

- 오랜시간 형성된 지역산업은 관련된 많은 서비스를 넓게 형성하고 있으므로, 대규모 재개발은 이러한 산업생태계를 파괴함
- 값이 싼 점포도 매우 필요한 존재





공공건물/사회주택

비즈니스 센터

호텔/숙박

주거

공장

창고

중공업

3. 발전 vs 보존

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, 보존해야 하는가
VS
경제적 이익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개발해야 하는가



[제인 제이콥스]

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 출신

지역사회의 문제와 도시계획, 도시의 쇠퇴에 대해
관심을 쏟은 저술가이자 사회운동가, 언론인, 도시
계획가

스크랜턴트리뷴 기자 출신, 1952년 뉴욕 건축포럼
의 부편집장 역임

도시는 사람들간의 커뮤니티에 기반한다고 믿음

미시적인 관점으로 대중들의 대변자로 활동

[로버트 모세스]

유태인으로 최고의 엘리트교육

1920년부터 뉴욕 주지사

광대한 공공 주택 건설과 각종 공공 인프라 건설 지휘

오스망의 파리개조계획 감동

르코르뷔제의 이상적 아이디어를 실현한 행동파

이 둘의 대립은 1960~70년대에 절정을 이룸



- 위생적이지 못하지만, 전통적인 지역 모습도 체험이 필요한 가치
- 미시적 관찰가로서 "상식"과 "과정"을 중요하게 생각함
- 일하고, 놀고, 거주하는 기능이 섞이고, 공장, 상권 그리고 학교 등의 용도가 섞여 있는 것이 바람직함
- 혼합된 공간에서는 각기 다른 계층과 문화와 라이프스타일도 섞여서 작동한다고 믿음
- 도시의 복잡한 구조를 거미줄처럼 엮여진 상호의존 형태로 해석했고 보존을 추구함
- 불결하고 난잡한 지역과 타운을 기능적이며 쾌적한 형태의 신도시로 재탄생
- 거시적 사상가, 현실적이고 권력자였음
- 섞여 있어, 복잡한 것들을 치워버리고 효율성과 질서를 구축해가려 함
- 기존 낡은 건축물들과 저소득층 지역 거주지를 슬럼이라 규정
- 기차나 지하철 등 대량운송수단 철도와 교량, 고속도로 등으로 교체하여 질서를 구축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믿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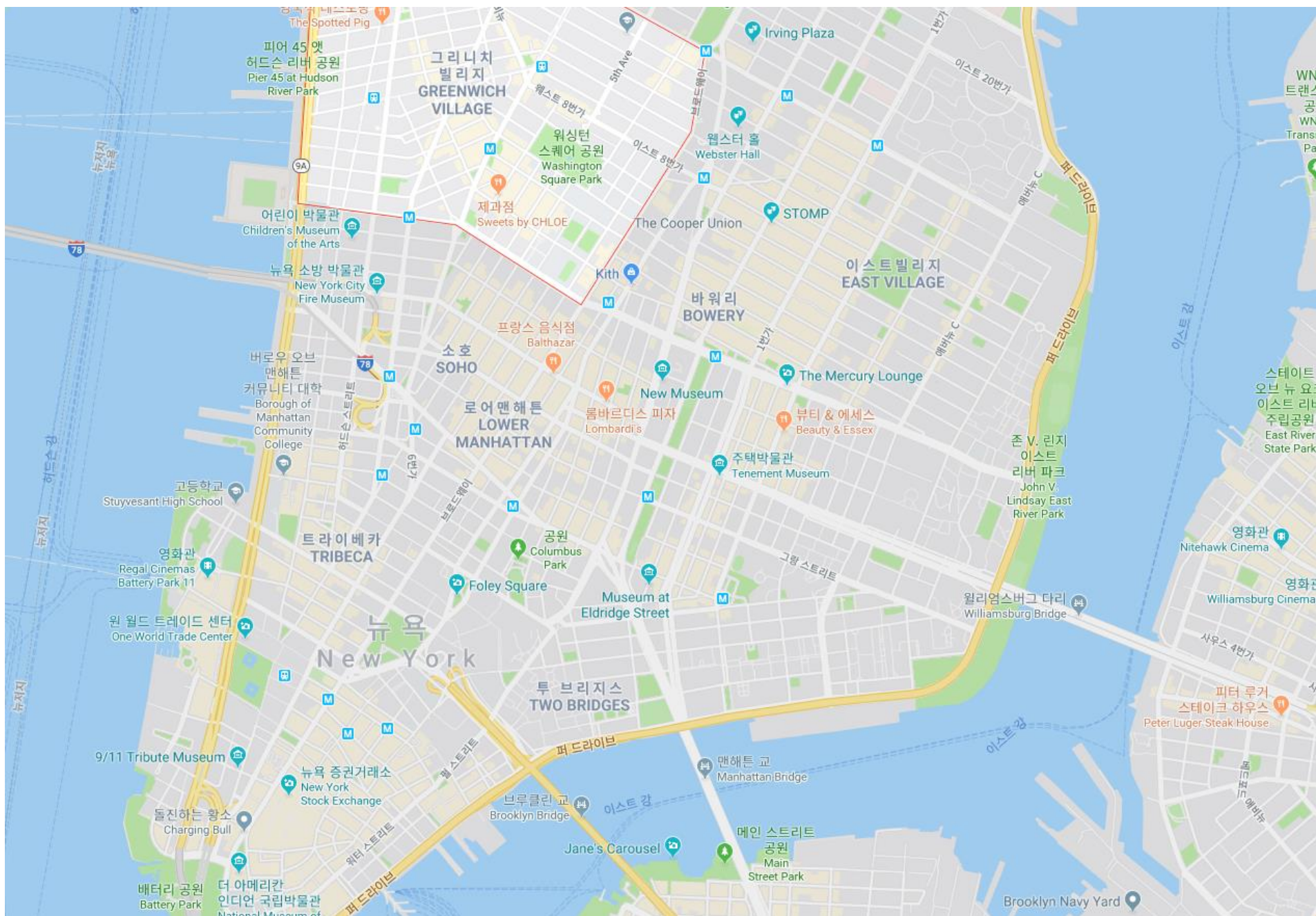


- 도시공간은 보행자를 중심으로 계획
- 넓은 것도 미래의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믿음
- 도시의 사회적/경제적 문제를 커뮤니티중심 사회속에서 해결하려 함
- 도시공간은 자동차 중심으로 계획
- 새로운 프로젝트로 넓은 것을 해체
- 정부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돈과 물질적인 혜택으로 보상, 새로운 빌딩들을 건설 하는 것에 의미부여

① LOMEX(Lower Manhattan Expressway project)



- 네덜란드 터널에서 맨해튼과 윌리엄스 버그 다리까지 고속도로 78 (10개 차선) 확장
- 장애물은 소호 (SoHo)와 리틀 이태리 (Little Italy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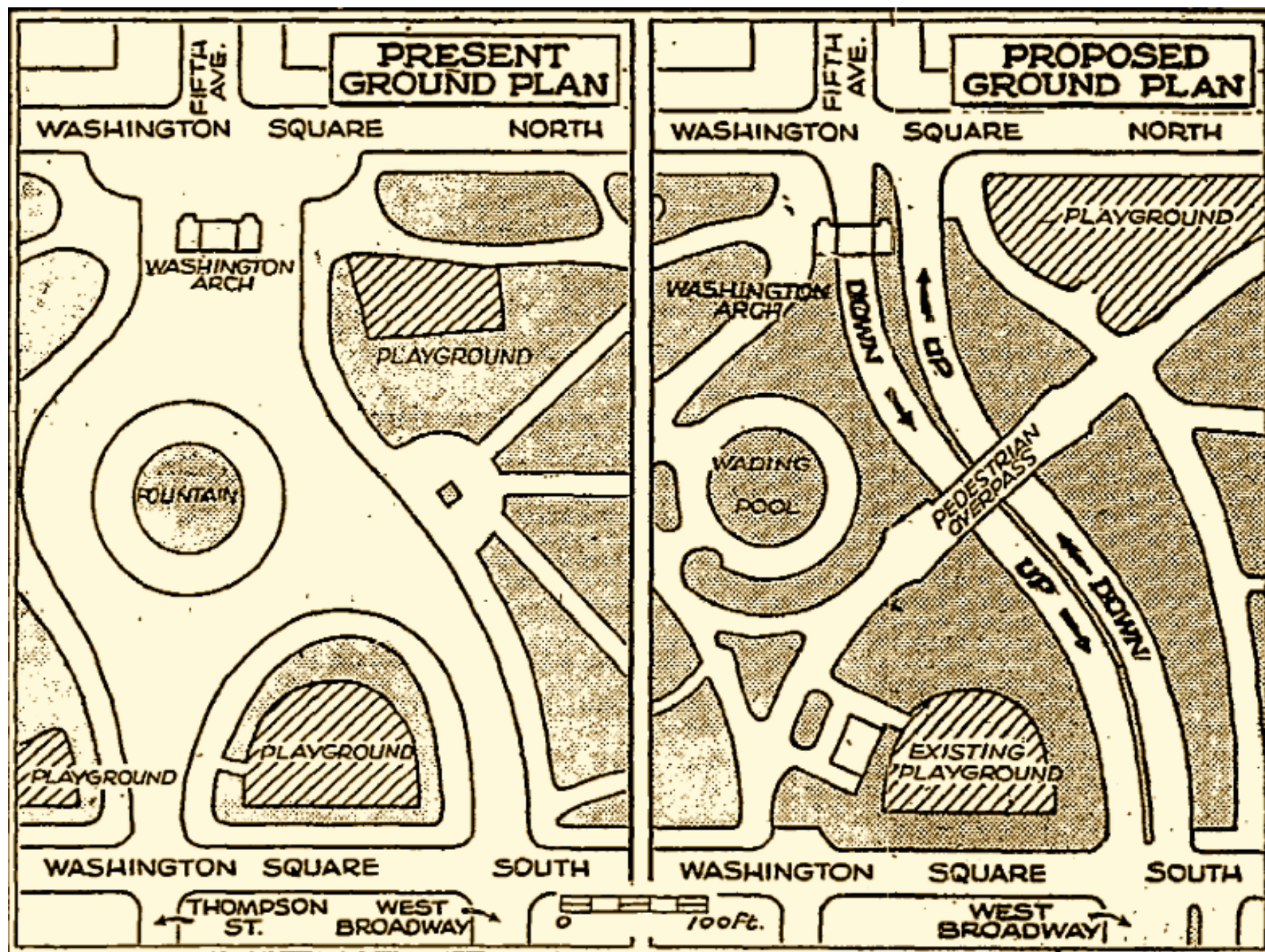
- 제안 된 철거에 대한 총액은 2,200 가구, 365 개의 소매점, 480 개의 상업 시설을 수용한 416 채의 건물

① Washington Square Park 고속도로건설 프로젝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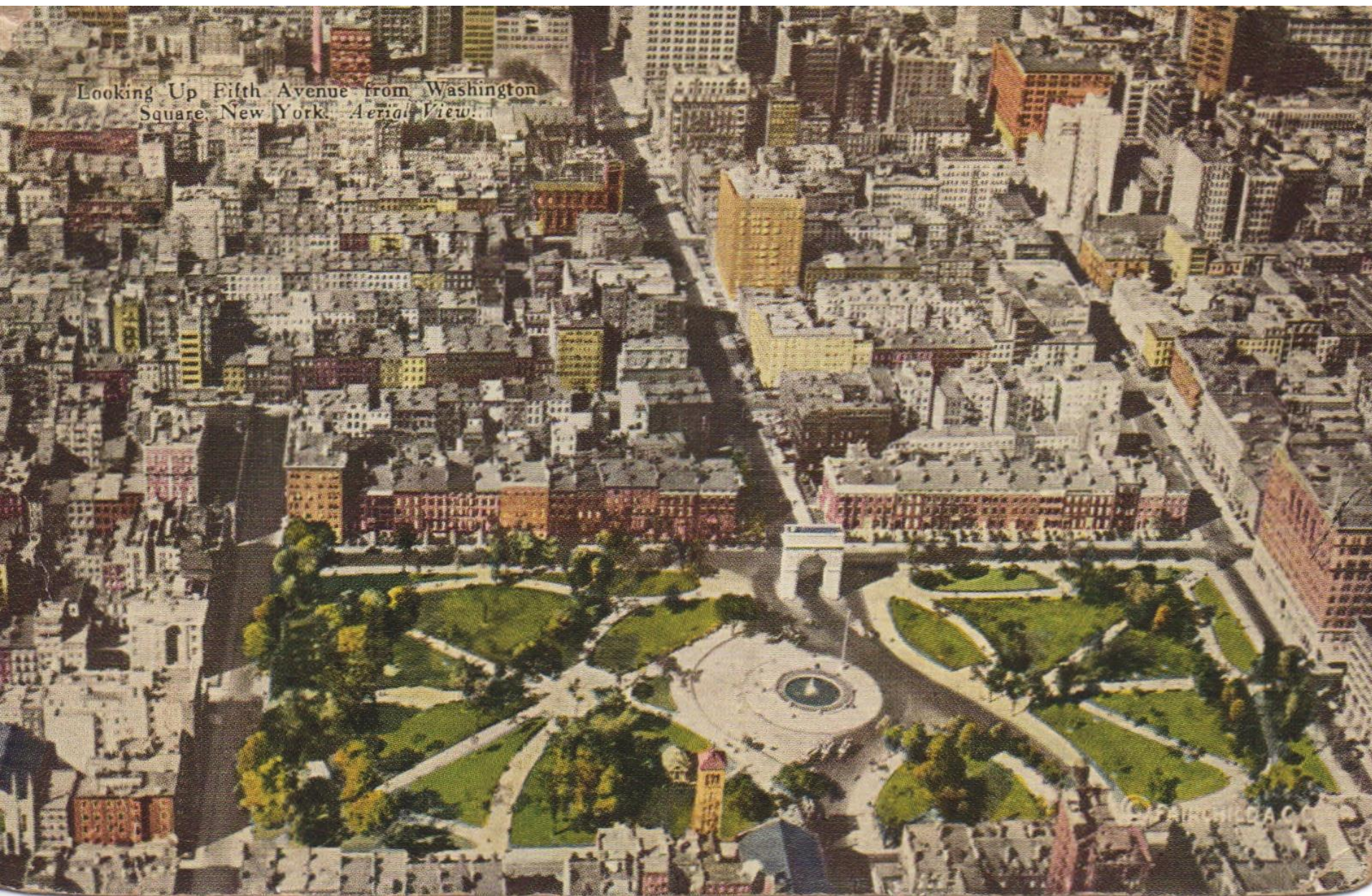
- 워싱턴 스퀘어의 남쪽에 5번가 재개발의 일환으로 계획
- 제인 제이콥스 (Jane Jacobs)는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끔
- 1958 년 Jane Jacobs는 Eleanor Roosevelt, Margaret Mead, Lewis Mumford와 같은 주요 선수들과 함께 Washington Square Park내 교통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
- 공원유지를 위한 법적, 행동적 투쟁에 앞장섬



* 1958년 고속도로 건설계획 저지후, 워싱턴스퀘어파크를 통과하는 마지막 자동차를 보여주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축하행사



[1928년 워싱턴 스퀘어 파크의 모습]



[1970년 까지 과도기의 워싱턴 스퀘어 파크의 모습]



② Washington Square Park 재건

- 잔디밭 확장 및 재배지
- 분수의 이전과 완전한 재건 및 복원
- 알렉산더 홀리 기념비의 보존
- 바닥포장, 새 공원시설물(벤치, 조명 등)
- 분수의 이동으로 인해 공원의 비포장 녹지가 약 20 % 증가
- 플라자에 인접한 새로운 잔디밭은 수동적인 휴양기능
- 2009년 5월 26일 완공



WASHINGTON SQUARE PARK - SCHEMATIC PLAN

Playground





③ 그리니치 빌리지

- 1950~60년대 **제인제이콥스**에 의하여, 도시생활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의 하나로 지목
- 전통적으로 작가들이 모여 살던 지역
- 르 코르뷔제의 "빛나는 도시"의 비전을 전면부정하며, 대규모 개발에 도전
- 지금은 브로드웨이와 함께 뉴욕을 문화도시로 견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

도시 중심부에 형성된 주거지가 도시의 인간미를 유지하는 데 중요

- East village : 우크라이나인들 거주지
- Soho : 최근 화가와 화랑이 집중하는 지역으로, 보가더스 등이 설계한 개방된 대형 다락공간이 있는 주철 건물들은 화가들이 매우 선호
- Lower East Side : 그리니치빌리지가 임대료가 상승하자 화가들이 이전

